

이슈

2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204호

U-17월드컵 대표팀, 멕시코에 0-1 사상 첫 4강 불발...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봤다



‘사상 첫 4강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2019 FIFA U-17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당당했다. 새 시대를 열어가길 미래의 자원도 여럿 찾을 수 있었다.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비토리아에서 열린 멕시코와 대회 8강에서 0-1로 패한 어린 태극전사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도전은 멈췄지만, 한국축구 이끌 보물 발견

호주·日 16강 탈락속 靑자존심 지커 신승훈·최민서·정상빈·오재혁 등 다양한 포지션의 새 얼굴 발굴 수확 김정수 감독 “계속 성장하라” 응원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꿨던 17세 이하(U-17) 태극전사들의 여정이 모두 막을 내렸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7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비토리아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17월드컵' 멕시코와 8강전에서 0-1로 패했다. 대회 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대업 역시 아쉽게 이루지 못했다.

● 후반 동한의 결승골 허용

이 대회에서 두 차례 정상을 밟은 멕시코는 초반부터 거센 공격을 몰아붙이며 한국을 압박했다. 전반 5분 산티아고 무뇨스의 슛이 골문을 살짝 빗겨나가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 연출했다. 그러나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반 14분 공격수 최민서가 왼발슛으로 멕시코 골대를 강타했고, 7분 뒤에도 강력한 슛으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후반 역시 팽팽하게 진행됐다. 양쪽 모두 교체선수들을 투입하며 선제골을 쫓았다. 효과를 본 쪽은 멕시코였다. 후반 32분, 호세 루이스가 문전에서 올려준 볼을 교체선수 알리 아빌라가 머리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0-1로 밀린 한국은 총공격을 펴부었다. 추가시간 4분이 흘렀지만 시점에서 얻은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 신승훈(금호고)까지 앞으로 투입했지만 끝내 동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휘슬이 울린 뒤 U-17 태극전사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쉬움을 달랠다.

● U-17 셋발 발견한 한국축구

비록 김정수호의 도전은 끝났지만 박수를 받기에는 충분한 여정이었다. 1987년 캐나다 대회와 2009년 나이지리아 대회 이후 세 번째 8강행을 이뤄낸 김정수호는 이번 대회에서 호주와 일본이 16강에서 탈락할 때 유일하게 8강 무대까지 살아남으며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켰다.

장차 한국축구를 이끌 U-17 태극전사들을 발견했다는 수확도 있었다. 주장 겸 수문장을 맡은 신승훈을 비롯해 공격수

최민서(포항제철고), 미드필더 정상빈(매탄고)과 오재혁(포항제철고), 수비수 이태석(오산고)까지 다양한 재목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진가를 드러냈다.

한국축구는 올해 연령별 월드컵에서 잇따라 호성적을 작성하는 쾌거를 맞이했다. 이강인은 필두로 한 U-20 태극전사들은 6월 월드컵에서 역사상 최초의 결승행을 합작했고, 이들보다 한 계단 어린 U-17 태극전사들 역시 이번 대회에서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

김정수 감독은 경기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8강행은 모두 선수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린 선수들이 앞으로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고봉준 기자 shultou@donga.com

내가 왜 떴게?

예비역만이 달 수 있는 맛글



태양

●태양, 고경표 맛글 : 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빅뱅의 태양. 군복을 입고 전역하는 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멋지다(주워)”, “드디어 전역한 거 나(위너 강승윤)” 등 동료, 선후배, 팬들의 축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태양과 육군 호국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한 배우 고경표의 “축하축하, 곧 따라갑니다”라는 축하 댓글에 태양은 “경표야, 그날이 올까”라는 짓궂은 댓글을 달아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했다. 고경표는 아직 현역 군인 신분이다. 걱정 마세요, 그날은 옵니다. 태양이 서쪽에 떠도 오긴 올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듯



아이비

●아이비, 냉동난자 : 20대 시절 색시 아이콘으로 이름을 날렸던 아이비. 30대 후반이 되었어도 여전히 섹시한 외모를 간직하고 있는 아이비지만 요즘은 털털한 입담으로도 인기. 방송에 출연한 아이비는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아이를 너무 좋아해 고민이 있다. 난자를 얼렸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절대 안 늦은 것 같습니다. 전기세 아낄 수 있어요.

다음 선물은 뭘까요?



현아

●현아, 역조공 : 좋아하는 스타에게 팬들이 선물을 하면 ‘조공’, 반대로 스타가 팬들에게 선물하면 ‘역조공’. 가수 현아의 톤크 역조공이 화제다. 자신이 출연하는 음악방송을 보러 온 팬들에게 고급 화장품 세트, 티셔츠, CD 등이 담긴 선물을 한 아름 안긴 현아는 며칠 뒤 또 다른 자리에서 커피 상품권을 팬들에게 나누어줬다. 멋져요, 현아님! 혹시 저도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팬이 되어버렸어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아이즈원, ‘홍백가합전’ 출연도 취소?

‘프듀’ 투표조작, 日 한류에도 치명타

日 멤버 3명 포함된 한·일 합작 그룹 활동 불투명...NHK, 출연 강행 부담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의 문자 투표 조작 파장이 일본 한류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프로그램이 배출한 한일 합작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의 현지 활동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즈원은 일본 연말 최대 가요제인 NHK ‘홍백가합전’의 출연자 물망에 올랐다. 취소설 상황에 놓였다.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출연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NHK는 하락 추세인 시청률을 다시

올리고 젊은 시청자들도 끌어들이 목적으로 아이즈원 출연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홍백가합전’에 출연한 트와이스를 이을 차세대 걸그룹으로 주목할 만큼 이들의 활약상에 기대를 걸었다. 아이즈원은 현지에서 ‘홍백가합전’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아시아TV ‘뮤직스테이션’의 ‘단골’ 게스트로 참여했으며, NHK 교육채널의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홍백가합전’ 출연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듀스 48’ 제작진의 투표 결과 조작에 따라 NHK의 이런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2명으로 구성된 아이즈원의 멤버 가운데에는 미야와키 시쿠라, 아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등 3명의 일본인이 속해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제작진의 부정으로 자국 멤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프로듀스 48’은 일본 최대 걸그룹 AKB48에서 제작



엠넷 ‘프로듀스 48’ 제작진의 투표 결과 조작 논란으로 이 프로그램 출신 아이즈원의 일본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진제공 | 오프더레코드

을 따르고 일부 관계자가 제작에 참여한 바 있어 향후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재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일본 버전인 ‘프로듀스 101 재팬’이 현지 지상파 채널인 TBS가 9월부터 방송 중이다. ‘프로듀스 101’의 제작사 CJ ENM은 2017년 방송 이후 올해 여름 포맷을 판매하고 제작

지원에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X101’ 제작진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뒤 포맷을 수출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11일 “포맷 수출에 따른 가이드 형식의 제작 지원”이라며 “국내 버전과는 투표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대어급 없는 FA 시장 1주일간 입질도 없네

급할것 없는 구단들 아직은 교감만 2차 드래프트 이후에 살아 당길 듯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잠잠하다. 공식적으로는 4일 문을 열었지만, 일주일일이 지나도록 거래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KBO로부터 2020년 FA로 승인 받은

선수는 한국시리즈 챔피언 두산 베어스 출신의 내야수 오재원을 비롯해 총 19명. FA 이전은 고사하고 이들 대부분이 아직은 원소속구단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오버페이’ 논란 끝에 과열양상이 한풀 꺾인 전년도 FA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9년 FA 시장의 1호 계약자는 지난해 11월 28일 원소속구단 NC 다이노스와 3년 총액 20억 원에 사인한 내야수 모창민이다. 11월 21일 시장이 개장한 이후 일주일여 만이었다. 이어 12월 5일 내야수 최정과 포수 이재원이 역시 원소속구단 SK 와이번스와 각각 6년 총액 106억 원, 4년 총액 69억 원에

계약한 뒤 12월 11일 포수 양의지가 NC와 4년 총액 125억 원에 계약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했다.

그러나 연내로 완료된 FA 계약은 이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1명 중 10명은 해를 넘겼고, 투수 노경은은 원소속구단 롯데 자이언츠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총 계약자 14명 중 양의지, 최정, 이재원만 50억 원을 넘겼을 뿐 나머지 11명은 30억 원 미만(7명은 20억 원 미만·2명은 10억 원 미만)이었다.

올해는 한국시리즈가 10월 26일 끝났지만, KBO의 시계는 여전히 시즌을 방불케 한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

어12를 치르고 있는 데다, 격년으로 시행되는 2차 드래프트 일정까지 기다리고 있다. 10개 구단이 40인 보호선수 명단을 10월 KBO에 제출했고, 20일 2차 드래프트가 실시된다. 이로 인해 각 구단은 마무리훈련 지원과 더불어 선수단 개편작업에 몰두해왔다. 서둘러 잡아야 할 대어급이 드문 2020년 FA 시장의 현주소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겨울 역시 시장 상황이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 우위로 형성되면서 구단들로서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만큼 2차 드래프트 이후 FA 계약의 싹바를 당길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